

지역 소식통

김제, 식품안전관리 유공
전라북도지사 표창 수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023년 식품위생 수준 향상 등 식품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전북도지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제시는 지난해 식품안전관리 유공기관에 선정되어 전라북도지사 표창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더욱 뜻깊은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번 식품안전관리 분야에서 김제시는 △식품위생업소 및 다중이용업소 위생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및 이물관리 △대표음식점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안심식당 지정 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2,179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예방 교육·홍보 강화와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435개소 대상 956건을 진행하여 식중독 발생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서, 협력 간담회

김제경찰서(서장 김영록)는 11일 '겨울철 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관계 기관별 현장 공동 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가정을 합동 방문하여 현장 위험성을 진단하고 필요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지원사업은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노인들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등 겨울철 전열기구 사용 증가로 인한 독거노인과 같은 화재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위험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협력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도내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겨울철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위험요소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창업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전문업체 컨설팅도 가능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올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총 16개 업체의 창업을 지원했으며, 주요 업종으로는 음식점업과 소매업, 미용 등이 있다.

지원기준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창업 예정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창업 점포 리모델링 등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최대 700만원(부가세 제외)과 임차료의 50% 이내 금액을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또한 김제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창업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지원하며 창업 업체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경영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창업 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창업 아이템이 있는 도전적인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2024년에도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구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빈집포 창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가 청소년 수련시설 관계자들과 만나 현황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제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온 힘'

용지면 양계농장 AI 확진

김제시는 지난 9일 관내 용지면 소재 양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500m 내 가금농장 16만 8천 수를 현대식 랜더링 방식으로 신속하게 살처분하였으며 농장에 보관 중인 계란 등 오염 우려 물품을 폐기하는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김제시는 지난 9일 관내 용지면 소재 양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58호) 주변 일제 집중 소독을 비롯, 10일 오후 10시까지 가금 전 축종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으며 예정되어 있던 주요 행사들을 취소하고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정성주 김제시장은 주말 휴일을 반납하고 방역 거점시설 3개소와 15개 방역초소를 방문하여 "방역 최일선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I 차단방역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며 근무자들

을 격려하고 방역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현장을 살폈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사육 농가의 방문 자제와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인 소독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꽃감축제, 대둔산도립공원서 개최

15일부터 17일까지

임금님께 진상했던 꽃감의 명품, 완주 꽃감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11일 완주군은 제9회 완주꽃감축제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도립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완주꽃감축제는 완주군이 주최하고, 완주꽃감축제추진위원회와 농협이 주관해 '꽃감처럼 달콤한 시간'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펼칠 예정

이다. 우선 15일 오전 11시, 장기자랑을 시작으로 '황금꽃감을 찾아라' 이벤트, 꽃감 만들기 체험, 꽃감 경매 이벤트, 꽃감 떡메치기·꽃감 썰기, 꽃감 가요제, 지역예술인 공연, 개·페마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축제에서는 대둔산의 차갑고 신선한 바람으로 만들어져 좋다고 알려진 두레시 꽃감과 동상면의 깊고 차가운 골짜기에서 만들어져 옛날 임금에게 진상했던 씨없는 고종시 꽃감

모두를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완주 로컬푸드로 꾸며진 농특산물 판매장, 딱거리 장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두영 꽃감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완주 꽃감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고 한겨울 대둔산에서 추억과 달콤한 시간을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두레시, 고종시 꽃감을 대상으로 국가인증인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전심사를 모두 통과하고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청소년 수련시설 관계자 간담회

유희태 군수, 애로사항 청취

유희태 완주군수가 청소년 수련시설 관계자들과 만나 현황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유 군수는 최근 청소년 수련시설 관계자 5명을 만나 각 기관의 전라북도의회회장을 비롯한 10여 개 부분의 수상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신관영 이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아동참여예산지원으로 청소년들이 영화를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권리영화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를 만드는 동안 아이들

은 한층 성장했고, 특별상까지 받게 돼 무척 기뻐다"고 말했다. 최정선 완주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2023년 아동·청소년포럼 행사에 가져주시는 완주군의 관심과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사기가 높아졌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각자의 자리에서 완주군 청소년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장님들이 계셔서 완주군의 미래가 밝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더 발전시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시키자"고 독려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한국특장차협회, 미래 특장차산업 발전 세미나

(사)한국특장차협회(회장 최길호)는 11일 김제시(시장 정성주) 백구면에 위치한 특장차인증센터에서 '2023 미래 특장차산업 세미나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임병근 본부장 등 내빈과 협회 회원사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해 '특장차 산업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를 주제로 상호 의견을 교류했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기업 경영인들이 한 해 성과를 축하하고 소통하며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길호 회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세미나 행사에 참석해 주신 회원사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우리 협회가 명실상부 특장차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여 특장차 산업 고도화 및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한국특장차협회는 지난 2013년 전라북도에서 전북특장차산업발전협의회로 설립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 62개 회원사와 함께 공동마케팅, 컨설팅, 기술 사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협회 주최로 제1회 미래 특장차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유일 특장차 집적단지 보유한 김제시 강점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세계로 도약하는 특장차 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이끌어 주신 기업 경영인 노고를 치하한다"며 "내년 경제 전망이 더욱 어렵지만 특장 기업이 위기를 이겨내고 도약할 수 있도록 (사)한국특장차협회와 협력하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